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不義)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매사추세츠 주(州)가 보다 자유분방하고 풀이 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유일한 장소, 또 현지점에서 가장 떳떳한 장소는 감옥이다. 주 정부는 법령에 의해 그곳에 그 사람들을 몰아 가두었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추방했던 것이다. 도망노예나, 가석방된 멕시코인 죄수나, 자기네 종족이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온 인디언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감옥이다.

격리되어 있으나 실은 더 자유롭고 더 명예스러운 곳, 매사추세츠 주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인이 명예롭게 기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감옥인 것이다. 감옥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정부를 괴롭히지 못하며 그들이 그곳의 담장 안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적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오류보다 얼마나 더 강한가를 모르는 것이요, 감옥 안에서 불의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져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나] 겨울이 오니 빨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 설상(雪上) 삼척 냉들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곧아 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쫓쫓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쾌짠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하고 버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각밭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 족지마는 마음으로 안 족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껌붙은 안 찢다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 실상 그들은 가명인(假名人: 마치 중국의 명나라 사람인 듯이 처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만든 것은 어쭙지않은 관료들의 죄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 기개, 사육신도 이 썩님의 부류요, 삼학사(三學士)도 딸각밭이의 전형인 것이다. 올라가서는 포은(圃隱) 선생도 그요, 근세로는 민충정(閔忠正)도 그다. 국호와 왕위 계승에 있어서 명(明)·청(淸)의 승낙을 얻어야 했고, 역서(曆書)의 연호를 그들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마는, 역대 임금의 시호를 제대로 올리고 행정면에 있어서 내정의 간섭을 받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 썩님 혼(魂)의 덕택일 것이다. 국사(國事)에 통탄할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직언으로써 지존에게 직소(直訴)한 것도 이 썩님의 족속인 유림에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임란 당년에 국가의 운명이 단석(旦夕: 매우 짧은 시간)에 박도(迫到: 닥쳐옴)되었을 때,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두목들도 다 이 딸각밭이 기백의 구현인 것은 의심 없다. 구한국 말엽에 단발령이 내렸을 적에 각지의 유림들이 맹렬하게 반대의 상서를 올리어서 “이 목이 잘릴지언정 이 머리는 깎을 수 없다”고 부르짖고 일어난 일이 있었으니, 그 일 자체는 미혹(迷惑)하기 짝이 없었지만 죽음도 개의 하지 않고 덤비는 그 의기야말로 본받음직하지 않은 바도 아니다.

[다] 아! 군자가 정치를 하면 어디에 가도 예(禮)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진휼(賑恤: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던 일)하는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큰일이요 많은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사들을 먹이거나 노인들을 봉양하는 데도 적합한 의식(儀式)이 있듯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유독 규칙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온 고을의 백성을 모아 놓았는데, 남녀가 뒤섞이고 어른과 아이가 자리를 두고 싸우니 어찌 이렇게 분별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까?

대개 예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요, 법(法)이란 일이 생긴 뒤에 금하자는 것입니다. 저 굶주린 백성들은 얼굴이 부어터지고 의복은 남루하며 오른손에는 쪽박을 들고 왼손에는 자루를 든 채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모양으로 허리를 굽혀 관아의 뜰에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능히 금지하겠습니까?

지난 번 진주(晉州)를 가는 길에 귀하의 고을을 거쳐 왔습니다. 마침 진흙하는 날이라 수천 수백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의 문 부근에 모여들었는데, 관아의 문은 안으로 닫혀 있고 문지기는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말을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통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못 사내와 계집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거나 어린애를 이끌고 와서, 혹은 관아의 문을 두들기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혹은 이러니저러니 떠들어대며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외모를 보면 모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숨넘어가는 형상이었으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모두 다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둠을 믿고 당당한 기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무릇 인지상정으로 부끄러이 여기는 것은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함이 없으나 잠시 동안은 한 사발 국물에도 염치를 차리는 법입니다. 이래서 내가 그들의 고유한 본성을 따라서, 혐의를 사지 않게 남녘을 가르고, 어른과 아이의 순서에 따라 줄을 만들고, 사족(士族)과 서민(庶民)의 명분을 구별하여, 질서 정연하게 서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있는 힘을 다해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제 본성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섭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만 못하고, 억눌러 이기는 것은 순순히 따르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른바 “죄를 면하기는 하지만 염치가 없어진다”고 한 것은 무섭게 하는 것을 이룸이요, “염치도 돌보게 되고 바르게 된다”는 것은 순순하게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자크 뱅상의 인쇄소 견습공이었던 제롬과 레베이에에는 더럽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잤으며,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루 종일 직인(職人: 주인과 견습공 사이에 위치한 기술자)들에게 시달렸다. 공장의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학대하면서도 먹을 것이라곤 찌꺼기밖에 주질 않았다. 주인의 부인은 고양이 기르기에 열광했고, 특히 ‘그리스’라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고양이 기르기에 대한 정열은 인쇄업자들 사이에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주인들의 계층에서는 만연되어 있었다. 한 부르주아는 고양이를 25마리나 길렀다. 그는 고양이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시켰고 구운 새고기를 먹일 정도였다.

한편, 견습공들은 인쇄소 지역에서 번성한 수많은 고양이들에 대처해야 했다. 고양이들은 견습공들의 더러운 침실 지붕 위에서 밤새 울어 충분히 잠을 잘 수 없게 했다. 제롬과 레베이에에는 가장 일찍 출근하는 직인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동안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주인은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감독에게 공장을 맡기고는 이따금 견습공들에게 화풀이를 해대었다. 어느 날 밤, 제롬과 레베이에에는 그런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흉내 내는 재능이 뛰어났던 레베이에에는 지붕 위로 주인의 침실 근처까지 기어가 오싹하게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 때문에 주인 부부는 눈을 붙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들은 견디다 못해 고양이들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여주인은 그리스만은 놀라지 않게 하라고 주의시켰다.

제롬과 레베이에에는 직인들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작업에 착수했다. 인쇄소의 갖가지 연장으로 무장한 그들은 그리스부터 시작하여 눈에 띄는 고양이들을 추격했다. 레베이에가 그리스의 등뼈를 내리친 뒤 제롬이 끝장을 냈다. 그리고는 직인들이 다른 고양이들을 때려잡거나 생포하느라 분주한 동안 죽은 그리스를 흙통 속에 살짝 숨겼다. 그리고 인쇄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근위대와 고해사와 사형 집행인이 완비된 모의재판을 벌인 뒤에 즉석에서 만든 교수대에 고양이들을 매달았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여주인이 왔다. 죽은 고양이들을 보고 놀란 그녀는 그 속에 그리스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절대로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순간 주인이 나타나서 공장의 작업이 중단된 것에 격분했다. 주인 부부가 돌아가자, 남은 군중들은 환희, 무질서, 웃음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마] 나는 인간이 다음과 같은 지점에 이르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 즉,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힘이 외부의 장애가 가하는 힘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이다. 이 지점을 지나면 인간이 자연 상태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며, 만약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힘들을 모아 관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외부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결사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결사체의 힘이 단일한 동기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힘의 결집은 여러 개인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간 개인의 힘과 자유는 자기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힘과 자유를 한데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체의 힘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면서도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섬길 필요가 없는, 즉 이전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결사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사회계약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25점]
-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 나타난 상황과 각 제시문이 주장하는 해결방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 3 제시문 [마]와 아래 인용문에 근거하여 집단과 개인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가]~[라]를 검토하시오. [30점]

군중은 독립적인 개인에 비해 지적으로 열등하다. 하지만 군중은 상황에 따라 개인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군중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군중을 오로지 범죄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오해하곤 한다. 물론 군중의 행동이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군중의 행동은 영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조나 이념을 지키는 것도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군중이다. 그래서 십자군 시기에는 군중들이 빵이나 무기가 없어도 영광과 명예를 위한 열정만으로 죽음에 도전한다.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많다. 예컨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남성 대 여성의 성비(性比)는 약 1:1.05로 여성이 5% 많다. 한편, 인간의 생물학적 출생 성비는 약 1.05:1, 즉 남아(男兒)가 5%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동일한 환경에서 여성의 생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비해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의 생존에 불리한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라진 여성(missing women)’ 개념은 이런 여성 차별의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각 나라의 남녀 성비를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남녀 성비와 비교할 때 여성의 수가 모자라는 정도를 계산한 것이다. 즉,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였다면 생존하였을 텐데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1990년과 2008년의 사라진 여성 수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연령대별로 다양하다. 생물학적 출생 성비를 초과하여 남성이 많이 태어나는 현상은 여러 문화에 잔존하는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변하지 않는 한, 태아(胎兒)의 성 감별 기술을 포함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아동기 여성에 대한 주된 위협 요인은 열악한 수도 시설과 같은 보건 위생의 후진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한편, 가임기(可妊期) 여성의 경우 산모(產母)를 위한 의료 기술 수준이 뒤떨어진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산모가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적 관습도 또 다른 요인이다.

<표> 지역별, 연령대별 ‘사라진 여성(missing women)’의 추정치 (단위: 1,000명)

	신생아		5세 미만 (유아기)		5~14세 (아동기)		15~49세 (가임기)		50~59세		합계 (60세 미만)	
	1990	2008	1990	2008	1990	2008	1990	2008	1990	2008	1990	2008
중국	890	1,092	259	71	21	5	208	56	92	30	1,470	1,254
인도	265	257	428	251	94	45	388	228	81	75	1,255	856
아프리카	42	53	183	203	61	77	302	751	50	99	639	1,182
남아시아 [인도 제외]	0	1	99	72	32	20	176	161	37	51	346	305
동아시아 [중국 제외]	3	4	14	7	14	9	137	113	48	46	216	179
기타	12	20	27	13	7	1	75	38	36	35	158	108
합계	1,212	1,427	1,010	617	230	158	1,286	1,347	343	334	4,082	3,882

* 출처: 국제보건기구(WHO) 및 국제연합(UN)의 자료를 사용해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진이 추정함

- (1) 기준이 되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남성 대 여성의 성비가 1:1.05이다. 남녀 총 인구가 1,000만 명인 어느 나라의 성비가 1:1이라면, 기준에 비교할 때 이 나라의 ‘사라진 여성’의 수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설명하시오. (단, 추정치는 1,000명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 (2) <표>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사라진 여성’의 수로 볼 때, 2008년 현재 가장 문제가 심각한 (a) 지역 및 (b) 연령대, 그리고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가장 문제가 심각해진 (c) 지역 및 (d) 연령대가 무엇인지 찾아 설명하시오.
- (3) 당신이 저소득국가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책임자라고 상상해보자. (2)에서 찾아낸 지역(들)의 ‘사라진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찾아낸 지역(들)의 문제점을 연령대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이 문제점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